

# 1950년대 여성시에 나타나는 애도와 우울

: 김남조와 홍윤숙의 시를 중심으로

이은영\*

## 차례

1. 서론
2. 김남조 시에 나타나는 애도
3. 홍윤숙 시에 나타나는 우울
4. 결론

## 〈국문초록〉

1950년대 한국문학은 6·25 전쟁의 상흔 속에서 전쟁의 참혹함에 대한 시적 극복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대응 양상은 주지하듯이 전쟁의 참혹함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적 실천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통 서정시와 모더니즘의 양상으로 나뉜다. 김남조와 홍윤숙은 1950년대의 전후의 상흔 속에서 전쟁의 참혹함과 절망의 고통을 시적으로 극복하려 한 대표적인 여성시인이다. 김남조와 홍윤숙의 1950년대 시는 그들이 처해있는 전후현실을 슬픔의 정조로 드러낸다.

김남조의 1950년대 시는 전후의 시대적 폭력성 앞에서 사랑이라는 평범한 삶에 대한 열망조차 이룰 수 없는 슬픔을 나타낸다. 김남조에게 다가온 사랑의 시대적 불가능성은 슬픔으로 남아 비애를 느끼게 한다. 하지만 김남조는 타자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을 견디며 슬픔을 애도하는 모습을 기도의 어조로 보여준다. 홍윤숙의 1950년대 시는 전후의 현

\*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실에서 오는 상실의 슬픔을 고향의 상실을 통해 드러낸다. 홍윤숙의 시에서 고향은 자기와 동일시되는 공간으로 작용하는데 홍윤숙은 나르시시즘적인 우울을 나타낸다. 이는 슬픔을 극복하지 못한 우울의 양상을 보이며 비극적인 전후의 현실을 드러내는 객관적인 지표로 작용한다.

이렇듯 김남조와 홍윤숙의 1950년대 시에 나타나는 슬픔과 우울의 정조는 절망 속에서 시로 현실의 위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된다. 이는 체험에 의한 절박함과 시대적 감정의 적극적인 표현으로 작용한다.

핵심어 : 1950년대, 여성시, 전후시, 정조, 사랑, 슬픔, 애도, 우울, 기도

## 1. 서론

6·25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한국문학의 전개에 있어 중요한 문학사적 사건으로 자리한다. 6·25전쟁은 남북한에 이루어진 대규모의 인구이동을 통한 시단의 재편성과 시단의 세대교체와 더불어 전통주의와 모더니즘의 대립구도가 정착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전후 전통주의 시는 전통을 통해 근대적 이성이 초래한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후 모더니즘 시는 전후적 현실에 대한 문명사적인 비판을 시도한다. 이와 같이 1950년대 시의 전개는 전후적 상황을 문제 삼고 폐허된 현실에 대응하여 전쟁의 참혹함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적 실천으로 나타난다.<sup>1)</sup>

이러한 1950년대의 시사에서 여성시인으로 문단의 주목을 받는 이는 1940년대에 등단하여 1950년대 이후 본격적인 문학 활동을 전개하는 김남조와 홍윤숙이다. 김남조(1927~)<sup>2)</sup>와 홍윤숙(1925~)<sup>3)</sup>은 1950년대의

1) 문학사와 비평 연구회, 『195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1. 59~60쪽, 이승하 외, 『한국현대시문학사』, 소명출판, 2005. 171~212쪽 참고.

2) 김남조는 1948년 『연합신문』에 「잔상」을 『서울대 시보』에 「성숙」을 발표하며 등

전쟁의 혼란과 상처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과 고통을 시를 통해 극복하려는 전후의 대표적인 여성 시인이다. 김남조는 사랑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며 섬세한 서정성을 확장시켜 나간다. 또한 홍윤숙은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과 함께 여성의 삶을 조명하며 동시대 다른 여성시인들에 비해 감상적인 목소리를 덜 노출하는 방식으로 현실의식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은 1960년대에 김현이 지적하듯 강한 액센트로 자신의 여성성을 강조하는 여류시인으로 평가<sup>4)</sup>된다. 이는 60년대에 여성시의 입지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김남조를 포함한 여성시를 ‘여류시’라는 남성중심적인 시각으로 평가하며, 역사의식이거나 현실의식이라는 치열한 시정신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이들의 시는 개인적 감상성에 빠져 역사성이 결여된 채 쓰여진 현실 도피물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시대적 감정을 드러내는 여성의 목소리였던 것이다. 이렇듯 1950년대를 대표하는 여성시인인 김남조와 홍윤숙의 시가 가지는 감정은 감상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그들의 시가 드러내는 감정이 1950년대 시 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김남조와 홍윤숙의 1950년대 시를 보면 공통적으로 슬픔의 감정이 많이 드러난다. 이 감정은 김남조와 홍윤숙의 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 짐작된다.

김남조와 홍윤숙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보면, 김남조의 시를 주제 중심으로 고찰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중 사랑을 김남조 시의 주조로 파악하여 전기적 생의 변화가 시적 전환을 이루어 사랑의 깊이와 폭이 확대되었다고 보는 것<sup>5)</sup>이 대표적이며 종교적 관점,<sup>6)</sup> 여성성의

---

단하였다. 1953년에 첫 시집 『목숨』(수문관)을 상재한 후 최근 2013년에 제 17시집 『심장이 아프다』(문학수첩)를 상재하였다.

- 3) 홍윤숙은 1947년 『문예신보』에 가을을 1948년 『신천지』에 ‘낙엽의 노래’를 발표하며 등단하였다. 1962년 제 1시집 『여사시집(麗史詩集)』(동국문화사)을 상재하였고 이후 활발한 시작 활동을 하며 2012년에 제 17시집 『그 소식』(서정시학)을 상재하였다.
- 4) 김현, 『感想과 克己-女流詩의 問題點』, 한국여류문학인회, 『한국여류문학전집』 6, 삼성출판사, 1967, 323~356쪽.

관점<sup>7)</sup>에서의 연구가 있다. 이를 통해 보면 김남조 시에서 드러나는 시의식의 원천은 전쟁 체험을 통해 죽음과 결핍 등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고통이 드러나는 조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윤숙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 상반되는 논의가 공존해왔다. 하나는 당대의 감성적인 여성 시와는 달리 감성에 치우치지 않고 인간 존재의 표현에 지성적인 면모를 드러내었다는 것<sup>8)</sup>이며 이와 상반되는 논의는 홍윤숙의 시가 여성시가 가지고 있는 센티멘털리즘적인 감정에 심취하여 시적 한계를 보인다고 평가하는 논의<sup>9)</sup>이다.

- 
- 5) 김남조 시의 주조를 사랑으로 분석하는 논의로는 오세영, 『사랑의 플라토니즘과 구원』, 김남조, 『김남조 시 전집』, 국학자료원, 2005, 1123~1142쪽. 원형갑, 『김남조와 사랑의 현상학』, 『현대시학』, 현대시학사, 1984, 7~8월호, 7~8쪽. 김복순, 『한국 현대 여류시에 나타난 애정의식 연구-모운숙, 노천명, 김남조, 홍윤숙 시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9. 정영자, 『김남조의 시세계』, 『한국여성시인 연구』, 평민사, 1996, 160~197쪽. 김용직, 『시와 사랑하기의 변증법』, 『시와 시학』, 시와 시학사, 1997, 가을호, 67~95쪽. 장현숙, 『김현숙, 김남조의 시세계』, 『한국현대시사 연구』, 시학, 2007, 334~365쪽. 김현자, 『전쟁기와 전후의 시(1950년~1961년)』, 『한국현대시사』, 민음사, 2007, 292~298쪽. 줄고, 『김남조 시에 나타나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 양상 연구』, 아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등이 있다.
  - 6) 김남조 시를 종교적 관점으로 연구한 대표적인 논의로는 김효중, 『김남조의 카톨릭시 연구』, 『인문과학연구』 7집, 2006, 178쪽. 정효구, 『해방 후 50년의 한국 여성시』, 『시와 시학』, 시와 시학사, 1995, 봄호, 75~96쪽 등이 있다.
  - 7) 김남조의 시를 여성성의 관점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논의로는 신은경, 『여성성의 구현으로서의 여성 텍스트와 여성문체-김남조 시를 중심으로』, 『한국 페미니즘의 시학』, 동화서적, 1988, 190~224쪽. 신기훈, 『1950년대 후반 여류시에서 ‘여성주체’의 문제: 김남조·박영숙·김숙자를 중심으로』, 『문학과 언어』, 제26집, 문학과 언어학회, 2004, 319~336쪽 등이 있다.
  - 8) 홍윤숙의 시를 지성적으로 분석한 논의로는 김현자, 『홍윤숙 시의 거리 두기와 집 짓기의 시학』, 『한국 대표시인 101인 선집-홍윤숙』, 문학사상사, 2004, 259~292쪽. 유시옥, 『한국 현대 시 백년 현대시인 백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8, 229~232쪽. 김인경, 『홍윤숙 초기시의 실존 의식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 40집, 2013, 5~29쪽 등이 있다.
  - 9) 홍윤숙의 시를 감상적으로 분석한 논의로는 김재홍, 『현대시와 역사의식』, 인하대학교 출판부, 1988, 196쪽. 김귀희, 『홍윤숙 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등이 있다.

두 시인을 비교문학적인 입장으로 분석한 이경수<sup>10)</sup>는 김남조와 홍운숙의 1950년대 시를 구원의 표상으로서의 여성 형상을 그려낸 것으로 평가하며, 그들의 시에 나타나는 우주적 상상력이 전후 상황을 극복하는 기능을 한다고 논의하여 두 시인의 어조가 여성적 글쓰기의 가능성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이 논의는 김남조, 홍운숙 두 시인의 1950년대 시에 나타난 현실 극복의 적극적인 기능을 시사하는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렇듯 김남조와 홍운숙의 연구사를 검토해 보면 김남조는 사랑과 구원의 문제를 천착하고 있고, 홍운숙은 인간 존재의 표현에 통찰력 있는 시선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대 다른 여성시인들에 비해 비교적 감상적인 요소가 적게 작용하여 지성적인 면모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김남조와 홍운숙의 시는 사랑에서 오는 슬픔의 감정, 더 나아가 존재에 대한 감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김남조와 홍운숙의 1950년대 시에 드러나는 슬픔의 감정은 그들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김남조와 홍운숙이 문단에 데뷔하여 시작 활동을 하던 시기는 전쟁의 흔적과 아픔이 가득한 폐허의 상태였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여성시인인 김남조와 홍운숙의 시는 시인들이 처한 시대의 실존적 위기의 감정을 시적으로 체현한 시인으로 자리한다. 이울배반적인 전쟁의 폐허 뒤에 전후의 김남조와 홍운숙은 그들의 삶의 조건을 사랑에 둔다. 인간이 살아가는 보편적 정서인 사랑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은 시대가 처한 현실 속의 사랑을 말한다. 하지만 전쟁이 야기한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상태에서 그들은 사랑을 이루고자 하지만 이를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전후의 상흔이 가득한 현실에서 그들이 이루어 내지 못한 사랑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시대의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들은 시대적 정조를 ‘슬픔’으로 바라본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세계를 인식하는 정조는 세계 내 존재로서의 인간이 현존재를 드러내는 방법이

10) 이경수, 『1950년대 여성시의 지형과 여성적 글쓰기의 가능성』, 『한국여성문학학회』 21집, 2009, 7~44쪽.

다. 하이데거는 존재의 ‘밝혀져 있음’의 방식으로서 ‘처해 있음’<sup>11)</sup>은 일상에서 볼 때 ‘기분’을 말한다고 한다. 인간의 현존재는 존재적으로 항상 어떤 기분에 빠져 있으며 그 기분으로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될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현존재는 이렇게 기분에 젖어 있으면서 항상 기분에 따라 존재로서 존재해야 하는 존재자로 밝혀진다.<sup>12)</sup> 이는 세계와 관계 맺는 가장 본원적인 차원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으로서 감정의 영역을 학문적으로 논의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으로 작용하고 있다.<sup>13)</sup>

본 논문에서는 김남조와 홍운숙의 시에 나타나는 감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두 시인은 전후의 상실의 세계를 슬픔의 정조로 바라본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이를 감상성으로 보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두 시인이 나타내는 슬픔은 감정의 문제로서 세계를 인식하는 근본적인 차원으로 보려고 한다. 하지만 두 여성시인에게서 드러나는 슬픔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진다. 김남조와 홍운숙은 1950년대의 한국 현대 시사에서 전후극복과 치유의 문제에 천착한 시인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가지며, 전후의 고통스런 현실 속에서 이뤄나갈 수 없는 사랑이라는 인간의 조건을 슬픔의 감정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본원적인 인간의 감정을 향유할 수 없는 시대의 상처를 드러내고 그 아픔을 공유하는 시적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김남조와 홍운숙의 시가 사랑을 추구하지만 시대적 현실로 인해 이룰 수 없는 슬픔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시가 나타내는 시대에 대한 감정은 그들이 처한 현실의 문제

- 11) 하이데거는 현존재를 뜻하는 ‘거기-있음’의 ‘거기(Da)’는 존재의 거기라는 뜻으로 존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현장이라고 말한다. 이는 다른 말로 밝혀져 있음이다. ‘밝혀져 있음’은 거기-있음(현존재)의 존재방식으로서 ‘처해 있음’, ‘이해’, ‘말’이 속한다. 존재의 ‘처해 있음’은 기분에 맞춰져서 밝혀진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기분에서 드러나는 ‘처해 있음’에 대한 존재론적인 해석을 ‘내던져 있음’이라고 하며, ‘거기에 있다’는 현사실과 더불어 존재이해가 일어난다고 한다.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 이기상 역, 살림, 2006. 193~199쪽 참고.
- 12)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이기상 역, 까치, 1997. 186~194쪽.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 이기상, 193~199쪽 참고.
- 13) 김홍중, 『멜랑콜리와 모더니티』, 『한국사회학』 40집 3권, 2006. 1~31쪽 참고.

를 나타낸 것임을 논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프로이트의 『슬픔과 우울』을 원용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정신 분석학적인 차원에서 프로이트는 『슬픔과 우울증』<sup>14)</sup>이라는 논문에서 슬픔(Trauer)<sup>15)</sup>이라는 정상적인 감정과의 비교를 통해 우울증(Melancholie)의 본질을 밝히고 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슬픔과 우울증은 환경의 영향에 따른 자극 요인이 동일하다. 슬픔과 우울의 바탕은 사랑과 사랑 대상의 상실이기 때문이다. 슬픔은 보통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에 들어선 어떤 추상적인 것, 즉 조국, 자유, 어떤 이상 등의 상실에 대한 반응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똑같은 종류의 상실감이 슬픔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은 김남조와 홍윤숙의 1950년대 시를 대상으로 한다. 김남조의 경우에는 1950년대에 상재된 『목숨』(1953), 『나야드의 향유』(1955), 『나무와 바람』(1958)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홍윤숙은 첫 시집 『麗史詩集』(1962)에 수록된 시들이 1950년대에 쓰여 졌거나 그 연장선에 놓인 작품이라고 보아 첫 시집인 『麗史詩集』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작품분석의 기본 자료는 『김남조 시 전집』과 『홍윤숙 시 전집』으로 하여 본문 인용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 2. 김남조의 시에 나타나는 애도

김남조의 1950년대 시는 타자에 대한 사랑을 갈구한다. 하지만 전쟁의

14) 지그문트 프로이트, 『슬픔과 우울증』,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윤희기 역, 열린책들, 2004. 243~265쪽.

15) 본고에서 원용한 프로이트의 『슬픔과 우울증』에서는 Trauer를 슬픔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Trauer는 애도로도 번역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두 시인이 처한 일상적인 감정을 슬픔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슬픔과 프로이트가 말한 슬픔을 구분하기 위해서 프로이트가 말하는 슬픔인 Trauer는 애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본고에서 말하는 ‘애도’는 여기에서 말한 ‘슬픔’이다.

폭력성 앞에 사랑에 대한 추구가 좌절된 화자의 슬픔이 ‘울음’, ‘설음’, ‘눈물’이라는 어휘로 나타난다. 김남조가 처해있는 슬픔은 그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슬픔이다. 시인이 처한 슬픔의 세계는 전후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그 누구도 평범함 삶을 이어 갈 수 없는 세계이며, 타자와의 사랑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고통과 아픔의 현실이 슬픔으로 표출되어 나타난다. 시인이 처한 세계는 슬픔으로 가득하다.

운명이야 처음부터/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만/어두운 길바닥/못생긴  
질그릇처럼 퍼질고 앉아/눈도 귀도 없이 울어 보았습니다/어찌 울적한 산불  
뿐이겠습니까/인간도 이따금 하늘 골수까지/헤집고 물어 뜯는/담대한 분노  
이어야 하는 것을//학력이나 강령, 노숙한 태양 같은 것이/그 무슨 소용이겠  
습니까/원시의 동맥이 실하게 내어 비치는/착하고 실한 하나의 지아비를/우  
주처럼 섬기며 살고 싶었습니다//목숨도 바람도 기다림까지/자라모가지처  
럼 움츠러드는/검은 상복같은 밤에/미운 질그릇처럼 퍼질고 앉아/눈물 적시  
며 허무는/검은 흙덩이의 목시……/오오 아직도 이처럼 변성한/인육의 윤리  
가 있습니다//

- 「어둠」 전문

위의 시는 화자 자신의 작은 소망과 그 소망이 이루어 질 수 없는 폐허가 된 현실을 강렬하게 대비시키고 있다. 화자 자신이 바라오던 소망은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아닌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따르고 자연의 원리, 생의 순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다. 화자는 “원시의 동맥”과도 같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힘차게 순환되는 세계를 바라고 있다. 그것은 여성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인식하는 화자의 모습으로 보여 지기도 하지만 타자와의 사랑을 통해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자연인의 모습으로서의 시적 화자의 모습이기도 하다. 시적 화자가 꿈꾸는 일상은 “나는 당신의 옥토//((중략)//입술 갖다대면/연지처럼 수줍은 꽃(「꽃」)”이 되어 사랑



하는 타자와 사랑을 나누며 삶을 살아가는 보통의 날들이다. 또한 “착하고 실한 지아비를/ 우주처럼 섬기”며 사는 삶이다. 지아비를 우주처럼 섬기고 살고 싶은 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소박한 바람이다. 이것은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화자가 처한 시대적 상황은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바람조차도 움츠리게 하는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한 시대이다. “어두운 길바닥”, “검은 상복”, “검은 흙덩이”와 같이 화자가 처한 세계는 죽음과 절망만이 가득한 어둠의 세계이다. 평범한 삶에 대한 꿈조차 이룰 수 없는 삶인 것이다. 시적 화자는 이러한 현실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분노한다. 이는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현실의 꿈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좌절되는데서 오는 반발이다. 분노하며 반발하는 것은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이렇듯 고통을 드러내는 것은 대상의 상실에서 오는 반응인데 화자는 그의 고통을 울음으로 표현한다. 화자는 현실 속에 사랑하는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의 고통에서 오는 슬픔을 울음으로 표출하는 것이다.<sup>16)</sup>

이와 같이 김남조가 처한 전후의 현실에서 그가 소망한 대상은 타자와 나누는 사랑이며 이는 지극히 평범한 삶에 대한 열망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후 현실 속에서 이룰 수 없는 열망은 화자가 바라보는 세계를 슬픔의 시선으로 처리하게 한다.

오랜 잊힘 같은 병이었습니다/저녁갈매기 바닷물에 휘어 적신 날개처럼/피로한 날들이 비늘처럼 돌아나도/북녘 창가에 내 알지 못할 이름의/아픔이던 것을//하루 아침 하늘 떠받고 날아가는 한 쌍의/떼기러기를 보았을 때/어쩌면 그렇게도 한없는 눈물 흐르고/화살을 맞은 듯/갑자기 나의 병이

16) 프로이트는 애도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었다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다른 목적이나 관심을 가질 수 없이 슬픔의 대상만을 바라보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한다. 자아는 사랑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대상에 부과된 리비도를 철회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리비도적 입장을 포기하려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반발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앞의 책, 244~246쪽 참고.

름이 그 무엇인가를/알 수가 있었습니다//

- 「사랑」 전문

시적 화자는 사랑을 “잊히움 같은 병”, 즉 잊혀 져야만 하는 병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현실을 살아간다. 사랑을 잊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화자는 아픔만을 간직하고 있다. 화자의 현실 속에서 사랑으로 인한 아픔은 잊어야만 하는 “병” 같은 것으로 다뤄졌던 것이다. 사랑은 타자와의 만남이며, 이 만남이 강렬할 때 사랑이 오는데 시적 화자가 지닌 사랑의 황홀함의 기억은 “병”과 같이 잊혀 져야만 했던 것이다. 시적 화자는 자신이 사랑을 하며 알게 된 사랑의 기쁨과 존재에게 다가온 사랑이라는 감정의 충격의 정도에 비례하여 고통을 받는다.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 없는 화자의 슬픔의 고통은 “병”과 같이 자의식의 심연 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적 화자는 자신의 슬픔의 원인이 사랑임을 알지만 사랑을 지킬 수 없는 현실에 처한 자신의 입장에서 신에게 간구하며 애원한다. 이는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며 화자가 슬픔을 애도하는 과정이다.

사람은 사람을 기다릴 일이 아니요 기다리게 할 일도 아니옵니다. 그들에 판 샘물의 파랗게 눈물처럼 고인 수심을 생각하고서라도 우리들 슬픈 연야 冥夜의 마지막 이 약봉約逢을 허물지 말아 주시옵소서//분별도 염치도 그 더욱 착한 건담성을 나는 알고 싶지 아니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하여 애 타는 그 가장 속 깊은 설움과 정성으로 고운 일몰의 말릴 길 없는 당신을 품어보아야 하겠습니다/찾아 주옵소서/못다 남은 눈 이 밤에 마저 감고 죽어 야함에라도 정녕 오늘밤 이사 어느 하느님께도 굽힐 수가 없사옵니다//

- 「기다리는 밤」 전문

위의 시에서 시적 화자가 기다리는 “사람”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분

명히 나타나있지 않지만 시적 화자가 애타게 품어보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히 드러나 있다. “하느님께도 굽힐 수가 없”다는 시적 화자의 저항은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하고 싶은 시적 화자의 의지가 얼마만큼 큰 것인지 짐작하게 한다. 시적 화자는 사랑의 대상과 함께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하느님에 대한 저항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화자는 그가 처한 현실 앞에서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의지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러한 사랑에 대한 집착은 화자의 슬픔을 더욱 강조하며 상실의 슬픔을 더욱 고조시킨다. 이는 신에게 조아리고 빌며 애원하다 저항하는 시적 화자의 태도를 통해 명확히 나타난다. 시적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사랑은 아무리 원하고 기다려도 시적 화자가 처한 현실 속에서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시적 화자의 슬픔의 크기가 얼마만큼 큰 것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아무리 저항하고 하느님이라는 막연한 신적 대상을 통해서라도 이루어 내고 싶어도 시적 화자의 외침은 안타까움을 더할 뿐 이룰 수 없는 현실에서 답을 수 없는 소리로 허공을 향해 흩어진다. “~소서”, “~옵니다”의 간절 한 기도의 형식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는 소망은 하염없는 기다림으로 여겨질 뿐이다. 그러한 사태 속에서 화자는 기도하고 바랄 뿐 자신의 의지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남으며, 화자의 의지가 통하지 않는 현실에서 화자의 슬픔의 크기는 커져간다.

사랑의 깊이만큼 상실의 상처는 치명적이다. 따라서 홀로 남은 화자는 어떻게 해서든 슬픔의 상처를 치유하려 한다. 슬픔의 상처를 극복하는 것은 애도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애도는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을 깨닫고 슬퍼하며 슬픔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에 성공하여 대상 상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sup>17)</sup>

잠든 숲속에 머문 달빛처럼이나/슬픔이 갈앉아 평화로운 미소 되게 하소

17) 지그문트 프로이트, 앞의 책, 244~246쪽 참고.

서//깎아 세운 돌기둥에/비스듬히 기운 연지빛 노을 같은/그리움일지라도/  
 오히려 말없는 당신과 나의 사랑이게 하소서//본시 슬픔과 간난艱難은/우  
 리의 것이었습니다//질푸른 수심일수록 더욱 붉은/산호의 마음을/꽃밭처럼  
 가꾸게 하소서/별그림자도 없는 밤이어서 한결 제빛에 눈부시는 수정의 마  
 음을 거울 삼게 하소서//눈물과 말로/내 마음을 당신께 알리려던 때는/아직  
 도 그리움이 덜했었다 생각합니다/지금은 침묵만이 나의 전부이오니//잇음  
 과 단잠 속에 스스로 감미로운/묘지의 나무들을 닮아/축원 가득히 속에서만  
 넘쳐나게 하소서/사랑하는 이여//

- 「연가戀歌」 전문

위의 시는 고통스러운 울음도 원망도 집착도 없이 사랑하는 타자에 대  
 한 축복의 마음이 기도의 어조 속에 담겨있다. 시적 화자는 슬픔의 원인  
 이 되는 예전의 사랑하는 타자에 대한 집착을 끊어가며 현실을 받아들이  
 는 모습을 보인다.

시적 화자는 치밀어 오르는 슬픔을 가라앉히고 슬픔과 고통을 견디고  
 견디어 남겨진 마음의 평안을 표출한다. 슬픔이 평화로운 미소로, 핏빛과  
 도 같은 고통스러운 그리움이 침묵 속에 남겨진 둘만의 사랑으로 여겨지  
 기 위한 그동안의 참기 힘든 슬픔의 고통을 눌러 담고 있는 듯하며 슬픔  
 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화자는 슬픔과 고통을 갈고 닦아  
 “수정의 마음”과도 같이 환해진 극복의 힘을 보여준다. 그의 고통은 고통  
 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묘지에 푸르게 자라난 나무와도 같이 슬픔을  
 감싸 안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성숙된 사랑을 향해 간다.

시적 화자는 잃어버린 사랑하는 타자를 그의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  
 있지만 슬픔의 작용을 완결하여 사랑하는 타자를 애도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화자는 슬픔을 그대로 견뎌 내며 그 사랑을 기억하는 애도를  
 해나가는 것이다. 이는 “연가”라는 시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랑으  
 로 리비도를 전환하는 것이며, 슬픔을 사랑으로 극복하려는 화자의 태도  
 가 보이는 것이다.

김남조의 시는 애도를 기도의 형식으로 구체화한다. 이는 개인 내면의 반성적인 이야기를 기도의 형식으로 기구하는 것으로서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 기도는 신이라는 절대자 앞에서 자신의 마음의 갈등과 번민을 넘어서 마음의 순수한 평화를 얻고자 하는 소망을 기구하는 행위이며 인간의 궁극적 가치에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도의 형식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으로서 화자가 슬픔을 애도하는 과정이다. 애도란 슬플 때 충분히 슬퍼하며 슬픔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이며, 이는 화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더욱 성숙한 사랑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sup>18)</sup> 애도란 슬픔을 충분히 슬퍼함으로써 슬픔을 치유하는 일이다.

김남조의 시에서 애도의 태도는 대상을 향한 의문문을 반복한 언어<sup>19)</sup>로도 드러난다. “오오” 등의 감탄사, “~니까” 등의 설의법(「어둠」, 「미명의 날」 등) “~여”(「영겁」, 「막달라 마리아」, 「설목」, 「부동의 좌표」, 「밤」, 「낙화」 등)의 호격조사가 반복되어 호격의 언어와 감탄형 어미가 드러나는 연이 반복되고 교차되어 슬픔을 애도하는 것을 비탄적 어조로 강화<sup>20)</sup>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김남조는 전후의 죽음만이 가득한 고통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기본 바탕이 되는 타자와의 ‘사랑’을 이루어 가지 못하는 슬픔을 강렬하게 보여준다. 김남조에게 다가온 사랑의 시대적 불가능성은 슬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도의 과정을 거쳐 극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18) 김동규, 『멜랑콜리 미학』, 문학동네, 2010. 287~288쪽 참고.

19) “애도의 언어는 데리다, 폴 드만의 지적처럼 호격의 근원적 절규, 의인법, 호격, 이름의 반복, 작별의 허구를 반복하기 등의 언술 형식을 보여준다.” 김승희, 「전후시의 언술특성: 애도의 언어와 우울증의 언어」, 『한국시학연구』 23호, 2008. 128~129쪽.

20) 김남조의 시에 나타나는 의문문의 반복은 끊임 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고통을 포함한 온갖 세상살이의 체험을 겪는 가운데 진정으로 깨우치게 되며 끊임 없는 기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러한 경지에 도달했을 때 바른 신앙인으로 살게 됨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김효중, 앞의 책, 178쪽.

와 같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의 슬픔의 감정은 파괴적인 변화를 야기한 전후의 사태 앞에 서있는 주체의 내면이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슬퍼하는 것이나, 고통스러워하고 기도하며 애도를 향해가는 시인의 열망은 시인이 맞닥뜨린 현실이 절망 없이 회복이 불가능한 세계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김남조는 현실의 슬픔을 피하지 않고 비탄과 절망을 애도로 승화시키며, 그 시대의 아픔, 즉 시대적 슬픔을 공유한다.

### 3. 홍윤숙의 시에 나타나는 우울

전쟁은 인간에게 매 순간 삶과 죽음 사이에서 극한 상황을 체험하게 한다. 전쟁 속에서 인간은 개인의 실존적 위기와 생명의 유한성을 자각하게 되며, 주변 타자들의 죽음을 마주하는 극한의 삶의 고통과 슬픔 속에 있게 된다. 홍윤숙은 전후에 발표된 시에서 ‘삶’과 ‘죽음’, 그 교차 선에서 인간의 실존적 위기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시적 화자를 통해 처절한 고통에서 오는 절망적인 슬픔<sup>21)</sup>을 드러낸다.

轉落하는 都市울시다/사랑도 誠實도 生命까지도//太陽은 아침마다 솟는다  
 다 한들/어디에 나의 하늘은 열려져 있습니까//敗亡의 북소리 황망한 거리  
 거리/미진한 榮華의 남은 꿈들이/落花처럼 휘날리는 저녁입니다/이제는 사  
 람들 가슴마다에/故鄉도 어머니도 사랑하는 이들도/사라진 지 오래어/어두

21) “정서심리학에서는 정서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에는 일차적 정서가 있고 그 밖의 모든 정서는 이차적 정서이며 이차적 정서는 일차적 정서가 혼합된 것이라고 가정한다. 조긴슨은 두려움, 행복, 비애, 원함, 분노, 수줍음을 일차적 정서로 본다. 하지만 일차적 정서로 명명하는 것은 우연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기본정서인 비애는 비탄, 절망, 고통, 낙담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절망과 슬픔은 한 범주 안에서 논의될 수 있다. 절망은 슬픔의 양상으로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로버트 플레츨릭, 『정서심리학』, 박권생 역, 학지사, 2004. 116~118쪽.

운窓아래 마지막 돌아갈/집도 없음을 /저리 까맣게 몰려오는 까마귀떼들//  
 저물어 가는 世紀의 후반기 아득한 暮煙 속에 /蒼然히 비치는 마지막 노을  
 //人間은 검은 그림자처럼 엷어만 가고/목숨은 하루의 기약 없는 불꽃속에  
 /狂舞하는 蝴蝶들//반역과 기만, 배신과 파탄, 그리고 勝負의/진정인생은  
 골패없는 賭博場임을//이리저리 바람에 굴리는 落葉더미 위에/바야흐로 轉  
 落하는 都市올시다/사랑도 誠實도 生命까지도//太陽은 아침마다 쏜는다  
 한들/어디에 나의 하늘은 열려져 있습니까//

- 「轉落하는 都市올시다」 전문

이 시는 “전락하는 도시올시다”라는 구절이 제목과 첫 행에서 시를 열고 8연에서 같은 구절의 반복으로 시를 닫음으로써 시적 분위기를 응집시킨다. 화자의 입을 통해 단호히 발화되는 “전락하는 도시올시다”라는 진술은 화자의 의지로는 어찌 할 수 없이 파괴되어 가는 도시에 대한 상실감을 두드러지게 느끼게 한다. 그와 동시에 작품의 중심 소재로 등장하는 “전락하는 도시”의 묘사는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는 “패망의 북소리”, “어두운 창”, “까마귀 떼”, “마지막 노을”, “검은 그림자”와 같은 부정적인 시어들이 분위기를 주도한다. 이러한 전후의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상황에 대한 묘사는 시적 화자가 처한 암울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표출한다. 이 시를 읽다보면 ‘고통’이라는 단어가 연상되며 사랑하는 이들이 사라지고 돌아갈 집도 없는 저물어 가는 세계적 상황에서 전후의 비극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시적 화자는 자신은 살아남아 자기 자신이 살아가던 집과 거기에서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이 죽어간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곳은 화자에게 모든 것이 무너진 “전락하는 도시”로 다가온다. 화자의 삶을 이루던 일상이 참담하게 무너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새로운 날들이 시작 되지만 화자는 두렵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세상은 이룰 수 없는 꿈마저도 낙화처럼 떨어져 버리는 희망이 없는 곳이며,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 있던 고향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조차도 사라져 버린 세계이다. 모든 것이 파괴된 도시 속에서 시적 화자는 자신이 바라보는 세계를 “마지막 돌아갈/집도 없음”, “저물어 가는 세계의 후반기”, “마지막 노을”로 표현하며 그 절망적인 고통을 드러낸다. 자신의 의지로 제어할 수 없이 모든 것이 파괴된 세계 속에 처한 전후의 비애가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실의 정조는 전후의 절박한 세계감의 반영으로서 화자가 세계를 절망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렇듯 이 시는 전쟁이라는 폭력을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했던 인간의 무력함과 그로 인한 상실의 고통이 개인적, 사회적인 비애와 탄식을 가져오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런데 홍윤숙의 1950년대 시를 살펴보면 비극적인 상실의 대상이 고향이나 자신과 연결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짐을 알 수 있다.

홍윤숙의 시에 나타나는 고향은 생의 의지와 삶의 가치를 서로에게 부여하고 부여 받는 고향이며(『일몰』) 생명과 삶의 원천이 되는 고향이기도 하고(『불모의 땅』) 자기 자신에게 휴식이 되는 고향으로(『환향의 노래』) 나타남으로써 시적 화자에게 고향은 시적화자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리한다. 고향은 대부분의 인간집단에게 세계의 중심으로 간주되며 근원적인 애착을 갖는 곳이다. 고향은 어머니로 간주되며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이다.<sup>22)</sup> 이렇듯 고향은 자기의 근본이 되게 하는 존재로서 작용하며 자기 자신과 일치할 수 있는 곳이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밝혀주는 곳이다. 그러나 홍윤숙의 시에서는 고향이 상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22) 이푸 투안은 고향은 대부분의 인간집단에게 세계의 중심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별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 즉 그들의 고향을 중심으로 도는 것으로 인식되며 그들의 집을 우주의 중심으로 최상의 가치를 부여한다. 이러한 고향의 파괴는 한 개인에게는 우주의 파괴이다. 이 푸 투안, 『고향에 대한 애착』, 『공간과 장소』, 구동희·심승희 역, 도서출판 대운, 2011. 239~259쪽 참고.



가고 싶다……/廢墟로 변한 거리일지라도/이제는 봄빛 하나 보이지 않는  
 /荒漠한 廢都일지라도//그곳은 太陽과 꽃들이 뜨겁게 포옹하는/原始의 수  
 풀/꿈결에도 사무쳐 불러보는 목숨의 거리기에//明洞, 忠武路, 아니/그러한  
 호사스런고장이 아니라/차라리 젊은 未亡人처럼/애트는 길이 있다//樊忠壇  
 고개 넘어 城壁 쌓인 산길이며/漢南洞 넓은 新作路……/太陽이 부서지는  
 뜨거운 熱砂엔/노을이 꽃 피고 어둠이 오고……//눈 먼 老派의 걸음걸이처  
 럼/나른히 季節이 걸어오면/마을 한가운데 우람히 뻗어오른/플라타너스 우  
 거진 가지에도 凋落은 온다//바람부는 날에사 거리의 電線이/ 부엉이 울음  
 울고/소스라쳐 높이 솟은 街路樹 가지엔/젓빛 작은 새들이 까맣게 모여오  
 고//그러면 나는 얇은 창가에 턱을 고이고/ 긴-歲月을 손 꼽아 헤이며/조용  
 조용 지나간 이름들을 불러보곤 하였다//((…))//아-한 번은 돌아가고 싶  
 다……/廢墟로 변한 거리일지라도/이제는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荒漠한  
 廢都일지라도/그곳은 언제나 그리움과 노래와 싸움이 있어/뜨겁게 가슴 태  
 우는 목숨의 거리이기에……//

- 「가고 싶다 廢墟로 변한 거리일지라도」 부분

이 시에서 화자가 “가고 싶다”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장소는 고향이다. 폐허가 되어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설움은 시인이 직접 겪어 체화하여 드러나는 것으로서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어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화자는 반복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화자는 “가고 싶”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반복하여 심화시킨다. 그런데 화자가 돌아가고 싶은 고향은 “봄빛 하나 보이지 않는”,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에서 보이듯이 모든 것이 무너져 “폐허”가 된 공간이다. 이 곳은 이미 폐허가 되어버려 까맣게 때를 이루는 젓빛 까만 새들의 일상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일 뿐이다. 화자는 고향이 폐허이며 폐지로 변해버렸음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일지라도”의 반복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이렇듯 화자가 죽음과 우울의 수사가 가득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상실감을 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실한 자기 자신을 되찾고자 하는 나르시시즘적 퇴행의 결과물인 것이다.

프로이트는 정상적인 슬픔의 상태와 우울을 구분하며 우울을 나르시시즘과 연결한다. 프로이트는 우울증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비난이 자기에게 돌려진 자기 비난이 우울증으로 돌려지는 경우나 나르시시즘적 동일화의 두 가지로 유추한다. 나르시시즘적 동일화 속에서 퇴행의 상태로 이르는 우울증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강한 집착이 존재하지만 대상 리비도 집중이 저항의 힘을 전혀 지니지 못하는 데서 온다. 이와 같은 모순은 대상 선택이 나르시시즘을 기반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대상 리비도 집중이 장애물을 만나면 나르시시즘으로 후퇴한다. 나르시시즘에 바탕을 둔 대상과의 동일시는 성애 리비도 집중을 대체하게 되고 대상사랑을 동일시로 대체하여 이루려 한다.<sup>23)</sup> 그렇기 때문에 자아는 사랑하는 타자의 상실을 받아들일 수 없고 사랑하는 타자를 자기의 일부분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슬픔과는 달리 우울증은 상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자신의 마음속에 상실의 대상을 내면화 하고 자기와 동일시하는 것이다.<sup>24)</sup> 홍운숙의 시에서는 상실로 인한 슬픔을 받아들일 수 없는 화자가 나타나며 이것이 대상과의 자기 동일시를 낳는다.

아무리 보아도 예쁠 수 없는 모습이기에/차라리 죽어 凶鳥가 되었나/自  
 虐의 새 까마귀여//억년 안으로 쌓인 울분이 영키어 땀한 빛이/검은 弔服  
 으로 단장되고/참혹한 입부리 눈 언저리엔/嘲笑와 미움과 不信이 물결치는  
 사자의 신//몇 세기 邪戀에 찢긴 마음이 아쉽고 한스러워/아직도 定着없이  
 떠도는 낯일까/옛 마을 곳곳에 그리움을 찾아/아침 저녁 사무치는 이름을  
 울어 애음이/어쩌면 원망과 呪咀로 들리는 걸까//恩讐를 넘어 초연히 깃을  
 펴고 蒼空을 날아도/ 虛妄에 뚫린 가슴 메울 길 없어/수연히 돌아서 다시

23) 지그문트 프로이트, 앞의 책, 243~265쪽 참고.

24) 위의 책, 243~265쪽 참고.

보고/땀한 마음은 죽어 스러진 육체의 片骨마저/天空에 뿌리는가/야무진  
 性稟의 매서운 새여//검은 그림자 불길한 囚衣처럼 창문에 어릴 때/이루지  
 못한 소망에 지친 어진 가슴들/스산히 바람 따라 설레어 음은/人間이라 아  
 직 목숨에의 뜨거운 念願이/남았음이라/永劫 하늘을 墓地 삼아 유연히 나  
 는/忘却의 새여//가고 다신 못 오는 아쉬운 목숨이기에/사무치는 녀이라도  
 빌어 幻生하면/ 검고 흥한 너와 같은 새나 되어/온 세상 곳곳에/미진한 꿈  
 들을 심어 날을까//

- 「까마귀」 전문

이 시의 화자는 “까마귀”라는 시적 대상을 통해 죽은 사람들과의 동일시 속에서 살아남은 자신을 처형하려는 파괴적 충동을 드러낸다. 화자의 목소리에 스민 암울한 비애와 절망은 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까마귀”라는 대상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까마귀<sup>25)</sup>는 예부터 흉조이며 죽음을 나타내는 존재로 인식되어왔는데 이 시에서는 시적 화자가 까마귀의 죽음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과의 정서적 동일화라는 시적 과정을 거쳐 살아있는 자신을 죽음의 단계로 몰아간다. 이 시에는 “까마귀”가 “죽어 흉조가 되”어 버린 “자학의 새”로 나타나고, “사자의 신”, “정착 없이 떠도는 녀”이나 “죽어 스러진 육체”와 같은 죽음의 이미지들이 등장하고 있어 이러한 죽음의 수사가 상실의 세계를 바라보는 화자의 우울한 태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한다.

시적 화자는 “검고 흥한 너와 같은 새나 되어”라고 자신이 향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화자가 동일시 하고자 하는 “까마귀”는 죽음을 의미한다. 이때의 죽음은 화자가 처하고 있는 세계를 우울로 인식하고 있는 화

25) 까마귀의 상징성은 각 국가나 문화마다 다른데 중국에서 검은 까마귀는 악, 악의, 불운을 뜻하고 일본에서는 흉조, 불운을 뜻하지만 신도(神道)의 까마귀는 신들의 사자로서 성조로 여겨진다. 크리스티오에서는 고독을 뜻하며 그리스에서는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유대교에서는 썩은 고기, 시체를 뜻한다. 진 쿠퍼,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 상징사전』, 이윤기 역, 까치, 2010. 92~93쪽 참고.

자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죽음으로써 세계를 사랑하고자 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인간이기에 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을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보내고, 그 기억을 안고 고통스러워하는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기시키는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을 중단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우울증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었으며, 모든 기억을 단절하기 위한 우울증의 극한의 양상인 죽음에의 집착을 보여준다. 까마귀와 정서적 동일화를 이룬 것으로 보여 지는 화자의 의식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단절하고자 하는 나르시시즘적 우울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시적 화자는 현실의 삶을 마치고 죽음에 이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살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마지막 연에서 보이듯 “가고 다신 못 오는 아쉬운 목숨이기에/사무치는 녀이라도 빌어 환생하면”의 경계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화자는 삶을 끝내버릴 수도, 현실에서 살아갈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시적 화자는 이러한 절망 안에서 우울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남아 있다.

이 시는 전후의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시인이 고통스러운 낙심과 슬픔 속에서 갖게 된 자아의 빈곤을 보여준다. 이는 생과 사의 경계에 처한 자아가 “까마귀”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죽음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것이며, 대상에 대한 상실감에서 비롯된 우울이다.

이렇듯 상실감에서 오는 우울은 홍윤숙의 1950년대 시에 우울의 어조로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우울을 나타내는 시들에 “-이라”, “-가”, “-에야”, “-고”, “-다” 와 같은 서정적 각운과 단조로운 어조가 동시에 나타난다. 이러한 고전적이고 단조로운 어조는 우울증적 언술 형식을 보여줌으로써<sup>26)</sup> 자기 상실에서 오는 우울을 분명히 드러낸다.

26) 동요와 불안에서 벗어난 우울증 환자의 목소리는 조화롭지 못한 낮은 강세 악센트, 단조로운 선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총체적인 멜랑콜리, 우울증 증세는 단조롭고 침묵에 빠진 어조의 영역을 보이며 음조의 둔화를 나타낸다. 줄리아 크리스테바, 『검은 태양- 우울증과 멜랑콜리』, 김인환 역, 동문선, 2004. 74~76쪽 참고.

이렇듯 홍윤숙의 1950년대 시는 상실의 세계감을 나타내는데 이 때 상실의 대상은 고향이다. 시적 화자의 상실의 슬픔은 시에서 나르시시즘적인 우울로 드러나며, 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처한 화자의 우울한 자의식을 드러내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시로 현실세계를 표현하는 한 방법이 된다. 나르시시즘적인 우울을 드러내는 홍윤숙의 시는 비극적인 전후의 현실을 감성의 느낌을 기반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현실을 직시한다. 따라서 상실의 세계에서 오는 우울의 태도를 드러내는 홍윤숙의 1950년대 시는 시로 현실을 표현하고 인간의 가치를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 4. 결론

본고는 1950년대 전후 시에서 대표적인 여성시인으로 손꼽히는 김남조와 홍윤숙의 전후 시를 현실을 드러내기 위한 슬픔과 우울의 감정으로 논의하였다. 이는 전후의 고통과 억압 속에서 여성시가 보여주는 감정의 발화가 단순히 여성에 국한된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시대의 고통과 의식에 조응하는 시적 과정이라는 것을 밝혀나가기 위한 것이다.

1950년대는 전쟁으로 인해 죽음이 난무하는 현실의 폭력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대이며, 시인들은 이러한 현실을 미적 토대로 구축하며 시적 대응을 펼쳐나간다. 전후라는 시대적 파국의 체험 속에서 김남조와 홍윤숙은 여성시인으로서 그들의 시 쓰기를 추구한다. 김남조는 사랑의 시대적 불가능성을 보여주며 슬픔을 나타낸다. 또한 홍윤숙은 사랑하는 자기 자신과 동일시되는 고향의 상실에서 오는 우울을 드러낸다.

김남조의 슬픔의 감정은 전후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기인한 것임을 분명히 나타낸다. 이 안에서 화자는 자신이 겪는 슬픔이 사랑이라는 평범한 인간의 조건을 이루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며 아픔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화자의 슬픔은 타자와의 사랑을 열망함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현

실에서 오는 상실로 인해 타자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김남조는 타자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을 견디며 슬픔을 애도하는 모습을 기도의 어조로 보여준다. 김남조 시의 화자는 사랑하는 대상을 기억하며 슬픔으로 슬픔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홍윤숙의 1950년대 시는 전후의 현실에서 기인된 상실에 대한 슬픔을 강렬하게 드러내며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을 여러 작품 속에서 나타낸다. 화자는 고향을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홍윤숙 시의 화자는 슬픔을 슬픔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상실에서 오는 나르시시즘적인 우울의 양상을 띤다.

본고에서 논의 대상으로 설정한 김남조의 1950년대 시들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으나 슬픔을 슬픔으로 애도하여 치유하는 양상을 보인다. 김남조의 경우와 달리 홍윤숙의 1950년대의 시들은 슬픔으로 가득하며 자신을 투영시켰던 사랑하는 대상을 잃은 슬픔을 해결하지 못한다. 이는 나르시시즘적 우울로 드러내며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어 홍윤숙 시의 정조를 형성한다.

이렇듯 김남조와 홍윤숙의 1950년대 시의 슬픔과 우울의 정조는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절망 속에서 그들의 자의식을 드러내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시로 현실세계를 표현하는 한 방법이 되며 실존적 위기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김남조, 『김남조 시전집』, 국학자료원, 2005.

홍윤숙, 『홍윤숙 시전집』, 시와 시학사, 2005.

## 2. 단행본

- 김동규, 『멜랑콜리 미학』, 문학동네, 2010, 287~288쪽.
- 김윤식·김재홍 외, 『한국현대시사 연구』, 시학, 2007, 334~365쪽.
- 김재홍, 『현대시와 역사의식』, 인하대학교 출판부, 1988, 196쪽
- 문학사와 비평 연구회, 『195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1, 59~108쪽.
- 강금숙 외, 『한국 페미니즘의 시학』, 동화서적, 1988, 190~224쪽
- 오세영 외, 『한국현대시사』, 민음사, 2007, 292~298쪽.
- 유시옥, 『한국 현대 시 백년 현대시인 백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8, 229~232쪽.
- 이승하 외, 『한국현대시문학사』, 소명출판, 2005, 171~212쪽.
- 정영자, 『한국여성시인 연구』, 평민사, 1996, 160~197쪽.
- 한국여류문학인회, 『한국여류문학전집』 6, 삼성출판사, 1967, 323~356쪽.
- 홍운숙, 『한국 대표시인 101인 선집-홍운숙』, 문학 사상사, 2004, 259~292쪽.
- 진 쿠퍼,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 상징 사전』, 이운기 역, 까치, 2010, 92~93쪽.
- 줄리아 크리스테바, 『검은 태양-우울증과 멜랑콜리』, 김인환 역, 동문선, 2004, 74~76쪽.
-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이기상 역, 까치, 1997, 187~194쪽.
- \_\_\_\_\_, 『존재와 시간,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 이기상, 살림, 2006, 193~199쪽.
- 로버트 플래츨릭, 『정서심리학』, 박권생 역, 학지사, 2004, 116~118쪽.
-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윤희기 역, 열린 책들, 2004, 243~265쪽.
- 이 푸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회·심승희 역, 도서출판 대운, 2011, 239~259쪽.

## 3. 논문

- 김귀희, 『홍운숙 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 김복순, 『한국 현대 여류시에 나타난 애정의식 연구: 모운숙, 노천명, 김남조, 홍윤숙 시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9.
- 김승희, 『전후시의 언술특성: 애도의 언어와 우울증의 언어: 박인환·고은의 초기시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23집, 2008. 123~152쪽.
- 김용직, 『시와 사랑하기의 변증법』, 『시와 시학』, 시와 시학사, 1997, 가을호. 67~95쪽.
- 김인경, 『홍윤숙 초기시의 실존 의식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40집, 2013. 5~29쪽.
- 김홍중, 『멜랑콜리와 모더니티』, 『한국사회학』 40집 3권, 2006. 1~31쪽.
- 김효중, 『김남조의 카톨릭시 연구』, 『인문과학연구』 7집, 2006. 165~186쪽.
- 신기훈, 『1950년대 후반 여류사에서 ‘여성주체’의 문제: 김남조·박영숙·김숙자를 중심으로』, 『문학과 언어』 26집, 2004. 319~338쪽.
- 오세영, 『사랑의 플라토니즘과 구원』, 『김남조 시 전집』, 국학자료원, 2005, 1123~1142쪽.
- 원형갑, 『김남조와 사랑의 현상학』, 『현대시학』, 현대시학사, 1984, 7~8월호. 7~8쪽.
- 이경수, 『1950년대 여성시의 지형과 여성적 글쓰기의 가능성: 김남조와 홍윤숙의 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1집, 2009. 7~44쪽.
- 이은영, 『김남조 시에 나타나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 양상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 정효구, 『해방 후 50년의 한국 여성시』, 『시와 시학』, 시와 시학사, 1995, 봄호. 75~96쪽.



**Abstract**

## A Study on Mourning and Depression of 1950's Women poetry

- With focusing on Kim Nam-Jo and Hong Yoon-Sook.

Lee, Eun-Young

1950's Korean literature shows the aspect of poetic overcome for the horror of the war in the scar of the Korean War. This aspect in responding gets to do the various poetic practices to overcome the horror of the war, as well known, with being splited into the aspect of the traditional lyric poetry and the aspect of the modernism. Kim Nam-Jo and Hong Yoon-Sook are the representative female poets who attempted to overcome the horrors of war and the agony of despair in poetic methods.

Kim Nam-Jo's 1950's poem shows the sorrow that one cannot achieve the aspiration for a normal life due to the periodic violence of the postwar period. But Kim Nam-Jo endures the reality that she cannot achieve love with the other, and she depicts mourning for the sorrow in the tone of praying. Hong Yoon-Sook's 1950's poem shows the sorrow of loss, which comes from the reality of the postwar, through one's hometown. In her poem, the hometown works as the space being identified with herself, and it shows that the lost object is herself. This depicts the aspect of depression coming from failing to overcome the sorrow.

In this way, the sentiment of sorrow and depression appeared in

Kim Nam-Jo and Hong Yoon-Sook's 1950's poems become the measure expressing the crisis of the reality with poetry in the despair that one cannot achieve love. It has the inner depth working as the enthusiastic expression for the desperation, coming from an experience, and for the sentiment of the age .

Key words : 1950's, Woman Poetry, Postwar Poem, Sentiment, Love, Mourning, Melancholy, Depression, Praying

■ 본 논문은 2015년 3월 20일에 접수되어 2015년 3월 25일부터 4월 17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5년 4월 2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